

■ 제76주년 제주4·3 추념식 거행된 평화공원 현장

“4·3’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 미어져”

오빠 표석 앞에 선 80대 여동생
“하도 세월이 흘러 기억 잘 안나”
구순 앞둔 아들 각명비서 눈물
“4·3은 하염없이 아픈 기억 뿐”

“이제는 하도 세월이 흘러서 오빠 얼굴이 잘 기억 안 나. 하지만 나를 예뻐해 줬던 것 하나만큼은 아직까지 기억하지. 오빠의 시체도 못 찾았으니... 4·3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제76회 4·3추념식이 거행된 3일 제주4·3 평화공원. 4·3때 희생된 오빠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김경인(84·제주시 아라동) 씨는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연신 발을 동동 굴리며 오빠의 이름을 찾았다. 그는 오빠의 이름을 발견하자마자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가방 한가득 가지고 온 떡과 과일 등을 꺼냈다. 이내 술도 한 병 꺼내든 김씨는 눈을 꼭 감으며 갈수록 희미해져만 가는 오빠를 추억했다.

그는 “오빠가 22살이고 내가 9살때 일어났다. 토벌대가 오빠를 정뜨르 비행장으로 끌고 가 총을 쏘다”며 “오빠가 죽지 않자 옷을 벗기고 또 한 번 총을 쏘다더라. 그래도 오빠는 살아서 밤에 몰래 인근 동네까지 기어 왔



3일 거행된 4·3추념식에서 유족들과 도민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왼쪽).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은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오른쪽).



제주도사진기자회

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서둘러 오빠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오빠는 또다시 토벌대에 붙잡혔고, 결국 이날 이때까지 오빠를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씨는 “유족들에게는 하염없이 아픈 기억들 뿐인데 아직까지 4·3을 폄훼하려는 이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국가적으로 더 이상 4·3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는 곳은 날씨에도 4·3희생자 유가족과 제주도민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족들은 각명비와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준비해 온 음식과 술로 절을 올리고 고인의 이름을 손으로 연신 쓸어내렸다. 쓰고 온 우산마저 내버려둔 채 내리는 빗방울을 맞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념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은 김명인(89·제주시 애월읍)씨는 각명비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씨는 “양민증을 줄 테니까 나오라는 경

찰의 말에 눈이 펄펄 내리던 날 집을 나섰던 아버지는 세월과 한참 떨어진 사라봉 인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그 때 아버지 나이가 36세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때의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나이 들어버렸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일이 바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올하는 직접 유족들 앞에 나서서 위로의 말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최고기온 17℃ 내외 기상청 “당분간 평년 수준”

제주지역은 당분간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 새벽부터 낮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5일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4일 아침최저기온은 12~13℃, 낮최고기온은 17℃ 내외로 예상된다. 5일 아침최저기온은 12℃ 내외, 낮최고기온은 17~18℃가 되겠다.

또 제주 해상에는 5일까지 초속 9~16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채현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서귀포시 제공

국제학교 주변 너도나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월평균 8500건... 타지역의 20배 수준

서귀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구간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으로 줄인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주변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에 월평균 8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 대비 20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에 서귀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위한 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변경에 따른 의견 접수는 오는 9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행정 절차가

끝나면 지역주민 홍보 등을 거쳐 5월 중으로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관리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서귀포시 측은 “영어교육도시는 읍면지역으로 분류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20분간 유예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등 주민 불편이 크고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도,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추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부터 개편·운영한다.

도는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특히 상해 사망·후유장애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도는 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일사병 포함)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시 지급되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도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도민 540명에 대한 20억원을 지급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세계
일류
상품

제주광어와 함께
세게로 나아가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
광어!**

제주바다인연 Sea FISHERIES

제주어류양식수협업동조합

조합장 **한 용 선**
 상임이사 오동훈
 이 사 강순오, 강명주, 김기남, 김용범, 이창홍, 현상훈, 김창유, 김봉원, 고민철
 감 사 강해원, 김형철

제주어류양식수협업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66
 T.064-766-7200 F.064-727-6611